

태광산업, 유보율 3만% 넘는다!

9월말 현재 2만5846%로 상장기업 최고 ... SK그룹도 1200%

국내 제조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을 쌓아놓기만 하면서 유보율이 600%를 훌쩍 넘어섰다.

특히, 10대 그룹은 유보율이 710%대로 치솟아 재무안정성이 지나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결산 제조기업 중 관리종목이나 전년과 실적 비교가 불가능한 곳을 제외한 535사의 2006년 9월말 현재 유보율은 평균 609.34%로 나타났다.

2005년 12월말 569.71%이던 유보율은 3월말 578.06%, 6월말 592.99%에 이어 600%를 넘어섰다.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나눈 비율인 유보율은 영업활동을 하거나 자본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자금 가운데 얼마만큼을 사내에 쌓아두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유보율이 높으면 통상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무상증자, 자사주 매입, 배당 등을 위한 자금여력이 크다는 의미를 갖지만, 반대로 투자 등 생산적 부문으로 돈이 흘러가지 않고 고여 있다는 부정적 측면도 지닌다.

제조기업 535사의 9월말 현재 잉여금은 322조2912억원으로 2006년 들어 8.44% 늘어난 반면, 자본금은 52조 8920억원으로 1.39% 증가하는데 그쳐 유보율이 더욱 높아졌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3/4분기 들어 유가와 환율 안정을 바탕으로 제조업이 뚜렷한 실적 개선세를 보이면서 잉여금이 늘어나 유보율이 더욱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10대 그룹은 149조8669억원의 잉여금과 20조9992억원의 자본금을 나타내며 유보율이 2005년 12월말 650.9%에서 2006년 9월말 713.7%로 62.7%p 높아졌다.

삼성그룹이 9개월 사이에 113.5%p 늘어난 1276.9%로 가장 높았고, SK그룹이 80.2%p 높아진 1200.1%로 뒤를 이었다. 롯데그룹은 롯데쇼핑 상장으로 대규모 주식발행 초과금이 유입된 영향으로 유보율이 1041.9%로 383.1%p 급등했다.

이어 ▲현대중공업 892.7% ▲한진 791.5% ▲현대자동차 533.1% ▲GS 461.1% ▲LG 355.8% ▲한화 213.9% ▲두산 136.3%의 순서로 나타났다. LG그룹은 잉여금이 감소하면서 유일하게 유보율이 10.7%p 낮아졌다.

개별기업별로는 태광산업이 2만5846%로 가장 높았고 ▲SK텔레콤 2만3588% ▲롯데제과 1만7922% ▲롯데칠성음료 1만40508% ▲남양유업 1만2736% ▲영풍 5861% ▲삼성전자 5402% ▲BYC 5330% ▲고려제강 5200% ▲KCTC 4827% ▲POSCO 4510% ▲대한화섬 4306% ▲엔씨소프트 4092% ▲한국단자 3916% 순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1/21>